

NextRound 2019, Closing

별첨

축사

2019. 12. 11. (수) 10:00

금융위원회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오늘 「NextRound 2019, Closing」을 함께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의 넥스트라운드 성공적으로 자리잡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민병두 정무위원장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원광연 이사장님,

벤처캐피탈협회 정성인 회장님,

벤처기업협회 안건준 회장님,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대한민국 대표 시장형 벤처투자 플랫폼

「NextRound 2019, Closing」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II. NextRound의 성과 및 의의

내빈 여러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저성장이 일상화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혁신창업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중은 미미하지만,
지난해 스타트업 투자금액이 7년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 * 「한·미·중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비교」(19.5월, 한국무역협회)
- 스타트업 투자금액 글로벌 비중: ('16) 0.4%, ('17) 0.5%, ('18) 1.9%
 - 스타트업 투자건수 글로벌 비중: ('16) 1.2%, ('17) 1.8%, ('18) 2.3%

이러한 스타트업 투자 열기를 주도하고 있는
<넥스트라운드>의 성장과 활약을 보면,

바르셀로나 축구의 전성기를 이끈 일등공신이자,
세계적인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를 배출한
바르셀로나 유소년 축구선수 육성 시스템
“라 마시아(La Masia)”가 떠오릅니다.

<넥스트라운드>를 거쳐간 기업들의 성과도
“라 마시아” 못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200여개 기업이
총 1조원 이상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최근 유니콘 기업의 반열에 오른 “야놀자”를 필두로,
“직방”, “마켓컬리” 등
<넥스트라운드>를 거쳐간 많은 스타트업들이
성공의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라운드 개최*를 통해
수도권에 편중된 벤처투자 기회를 지방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개최지역: 제주, 춘천, 울산, 여수, 아산, 부산, 전북, 대덕, 경북, 경남
(총 44개 기업 IR 실시, 9개 기업 190억원 투자유치 성공)

뿐만 아니라, 글로벌 VC 연계 라운드*를 개최하여
국내 기업과 글로벌 시장을 연결함으로써
벤처생태계의 글로벌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 '18년 심천(5월), '19년 상해(5월), 자카르타(9월) 등

이러한 넥스트라운드의 거침없는 행보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응원을 보내며,

앞으로도 건전한 창업생태계 육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해봅니다.

Ⅲ.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도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수한 인재들이 혁신창업에 활발히 도전하고,
창업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첫째,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국내 최대 창업플랫폼 마포 「Front 1*」을 조성하여
기업 성장에 필요한 금융, 컨설팅, 해외진출 등
쏠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 신보의 마포 舊사옥을 활용한 민관합동 창업보육기관('20.6월 개소 예정)

둘째, 기업의 성장단계별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년까지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하여
혁신기업의 성장·회수단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 '18년 2.94조원, '19년 2.43조원 조성, '20년 2.9조원 조성 예정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운영중인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창업기업이 “죽음의 골짜기(Death Valley)**”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컨설팅, 만기연장 및 신규보증 지원(현재 기업은행만 운용중 → '20년 주요은행으로 확대 예정)

** 창업 후 3~5년차 기업이 겪는 경영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17년 조사 결과 창업 후 3년을 넘기고 생존한 기업의 비율은 38% 수준에 불과 (통계로 본 창업생태계 제2라운드(대한상공회의소, 2017))

셋째, 현재의 경영성과와 부동산 담보 위주의 여신 관행을 “미래가치”, “성장성”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식재산권과 기계설비 같은 동산자산이 포괄적으로 편리하게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기업이 보유한 기계, 재고, 채권,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일괄하여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술평가와 신용평가의 일원화를 추진해나갈 예정으로, 기술력 있는 기업의 경우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창업가들의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고, 과감한 재도전을 지원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연대보증 폐지의 내실있는 정착에 힘쓰는 한편, 민간 은행의 참여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 신.기보 연대보증 폐지 실적('19.10월 기준)

- ▶ 연대보증 없이 공급된 법인기업 신규보증 **16.3조원** 증가 : ('17.4~'18.3) 2.2조원 → ('18.4~'19.10) **18.5조원**, +16.3조원(741% ↑)
- ▶ 기존보증의 연대보증 **12.0조원** 감축 : ('18.4~'19.10) △ **12.0조원**

IV. 마무리 말씀

내빈 여러분

싸이월드가 페이스북 보다 5년,
네이버가 구글보다 1년
앞서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창업국가(Startup Nation)로 이끈 주역인
요즈마펀드의 이갈 에를리히 회장은
<요즈마 스토리>에서
“싸이월드가 시작부터 세계화를 지향했더라면,
오늘날 페이스북은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창업가 여러분,
여러분이 지닌 아이디어와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부디 넓은 시야와 큰 포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창업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역동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